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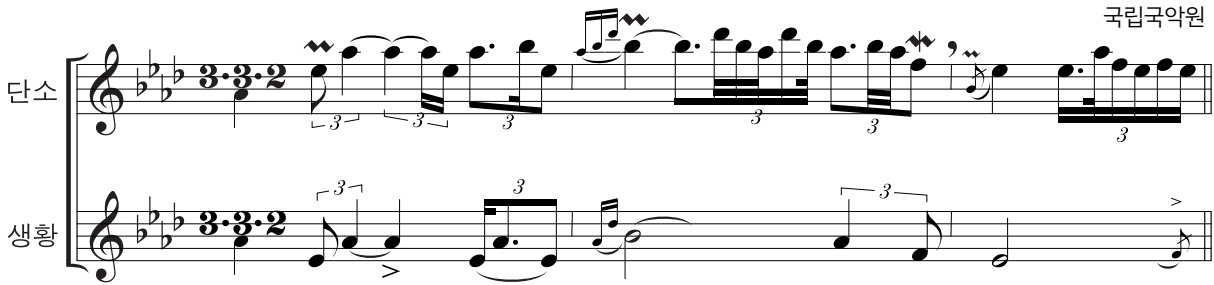
중주

수롱음



학습 목표 생황과 단소 선율의 음색 조화를 느끼며 악곡을 감상할 수 있다.

국립국악원



‘수롱음’은 가곡의 평릉, 계락, 편수대엽의 반주 음악을 기악으로 연주한 음악을 말한다.

*생소병주: 생황과 단소의 이중주이다.

1 생황과 단소 선율의 음색 조화를 느끼며 감상해 보자.

생황

깊고 부드러운 음색으로 국악기 중에서 유일하게 화음을 낼 수 있는 관악기이다. 바가지에 17개의 죽관을 꽂아서 만들며, 취구에 숨을 내쉴 때 관이 진동되어 소리가 난다.

단소

맑고 청아한 음색으로 독주 악기로 많이 사용된다. 대나무로 만들며 지공은 앞에 4개, 뒤에 1개가 있다. 입김을 취구 안으로 불어 넣어 공명을 일으켜 소리를 낸다.



김홍도 '월하취생도'



생소병주 '수롱음' 연주

정리와 평가 ●●● 생황과 단소 선율의 음색 조화를 느끼며 악곡을 감상할 수 있는가?